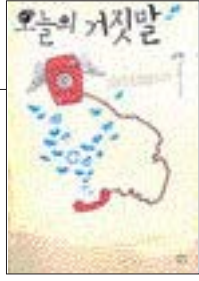


북스

Books

파국의 널빤지 위 아슬아슬한 일상

오늘의 거짓말 정이현 지음



한국판 '치킥(Chick-lit·젊은 여성들의 소설)'으로 인기를 끈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의 작가 정이현씨(사진)가 '낭만적 사랑과 사회'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 소설 집을 냈다. 작가 생활 통틀어 세 번째 단행본이다.

이번에 출간된 '오늘의 거짓말'에는 2004년 이효석문학상을 받은 '타인의 고독', 2006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삼풍백화점' 등 단편소설 10편이 실려 있다.

저자는 전작에서 1970년에 태어난 본인의 이력담에 주로 1970~80년대를 살아온 20~30대 여성의 눈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관조해왔다. 현실을 좇는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도 저자는 가르치려하지 않는 담담한 어법을 유지한다. 남들과 차별화되고 싶은 여성의 욕망과 일반적 삶의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안간힘 사이의 아이러니한 내면을 표현했다.

'오늘의 거짓말'이 전작과 다른 점은 주인공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주로 젊은 여성을 다뤘던 전작에 비해 이혼한 뒤 혼자 사는 남성('타인의 고독'), 20살의 아들을 둔 49살 여성('어금니'), 화려했던 보이소프라노의 삶을 뒤로 한 채 지방 합창단원으로 사는 남성('그 남자의 리허설'), 극성 염마 때문에 괴물을 강요받는 중학생('비밀과외') 등 다양한 군상들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다양해진 만큼 이야기도 풍성해졌지만, 저자가 묘사해 왔던 현대인의 풍속도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삼풍백화점'의 주인공은 "비교적 은화한 중도우파의 부모, 슈퍼 싱글 사이즈의 깨끗한 차대, 반투명한 초록색 모토를 라 호출기와 네 개의 핸드백을" 가진 강남 여성이다.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인 주인공은 오랜만에 만난 강박 출신의 고교 동창과 만나서 친해지고, 그녀가 일하는 삼풍백화점을 드나들며 사소한 일로 연락을 끊게 된다. 주인공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다 그냥 돌아온 어느 날, 백화점이 무너지고 주인공에게 친구의 방 열쇠만 남는다. 소설 속 장치에서조차 파국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10년 후 백화점 붕괴 현장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통합돼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어금니'에서 40번째 생일을 맞은 주인공은 치과를 찾은 그날,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다. 아들의 곁에 타고 있던 미성년자 여자아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지만, 남편의 '수고'로 모든 일이 잘 통합된다. 삼풍백화점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주인공의 어금니 통증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처럼.

표제작 '오늘의 거짓말'에는 홈쇼핑 사이트에 거짓 사용후기를 올리는 직업의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에게 삶은 "기브 앤 테이크"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일 뿐이다. 그녀를 견디게 하는 것은 "나는 나를 벌어먹이는 사람"이라는 자기 위안이다. 그녀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의 바깥으로 뛰쳐 나온다.

현대인에게 그녀처럼 "아무거나, 하고 싶어지는 걸" 하기 위해 무위도식을 선택하는 일은 소설 속의 이야기에 불과할 지 모른다. 하지만 일탈과 체제 순응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일깨운다. 김해경 문학평론가는 "욕망의 상처 안에 놓인 우리의 일상이 파국의 순간 위에 걸터앉아 아슬아슬한 널빤지 위의 삶과 다르지 않다면, 나, 혹은 당신은 파국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되묻는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시리즈 첫 2권 출간



한국사를 전공한 6명의 젊은 학자들이 모여 '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시리즈를 발간했다.

시리즈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베스트셀러의 저자들'과 '이미 우리가 된 이방인들' 등 두 권. 앞으로 9권이 더 출간돼 모두 11권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시리즈를 기획한 학자들은 정오(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심재우(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은정태(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고지훈(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류준복(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허태구(서울대 국사학과 강사)씨 등이다.

이들은 5개월간 머리를 맞대 극적 국면과 토끼를 드러내는 테마를 정한 뒤 그 테마를 지배한 핵심 인물을 시대별로 선정했고, 역사적 사실과 사실적 상상력에 기초해 히스토리의 스토리를 살려냈다. 〈동녘·각 권 1만원〉

역사 이이화 지음



우리역사는 일제의 식민사관과 지배층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수없이 왜곡돼 왔다. 일제가 심어놓은 '타율성론',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등 식민사관은 아직도 역사학계에 잔영으로 남아있다.

신분제 사회의 역사서술 방식에서는 민족들의 삶이 외면당했고, 민족의 뿌리인 고대사의 일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 학자 이이화씨가 쓴 '역사'는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역사 에세이다.

저술과 연구를 통해 역사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저자는 잊혀진 고대사를 복원하기 위해 인류의 기원과 단군건국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간다. 그는 TV 역사물에서나 등장하는 발해의 생활사와 문화사,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역

자주·개혁 시각서 풀어쓴 한권짜리 우리 역사에세이

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단군 건국신화 속에는 고대의 신앙과 생활이 배어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 곰과 호랑이는 '토테미즘', 박달나무는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는 '애니미즘'을 반영한 것이다. 발해 여성들은 기상이 높고 드셨다. 발해에서는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반해 여성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했다. 예절의 형식이란 따지면 '남존여비' 시대가 아니라 '여성상위' 시대였다고 한다.

저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들의 뿌리가 의병들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조일전쟁', 병자호란을 '조청전쟁'으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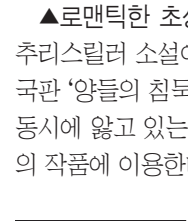
좌우 대립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했던 뼈아픈 역사도 소개된다. 1946년부터 1953년까지 남한의 순수 민간인 희생자수는 줄잡아 100만명에 달한다. 저자는 희생자를 양산한 '대구 10·1사건', '제주 4·3', '여순사건'의 발생배경과 사건 배후자들을 추적한다. 저자는 우리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사실(史實)을 시대순으로 조명하면서도 딱딱한 서술방식을 피하기 위해 이야기 형식을 빌고 있다.

〈열림원·1만1천45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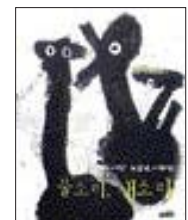
▲설마 있을까 싶은 기이한 동물 추적기=독일인 의학 칼럼니스트 만프레트 라이츠가 신비동물학을 파헤쳤다. 머리가 돌린 독수리, 설산의 거인 등이 왜 신화와 전설, 문학 작품에 등장할까. 저자는 고대 신화와 벽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프로네시스·1만3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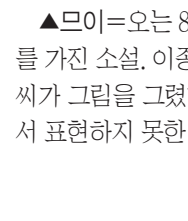
▲로맨틱한 초상=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이상감씨의 추리소설이 작가 사후 13년 만에 다시 출간된 것으로 한국판 '양들의 침묵'을 연상케 한다. 망상형 정신분열증과 간질을 동시에 앓고 있는 조카가 나철은 여인들을 납치 살해한 뒤 자신의 작품에 이용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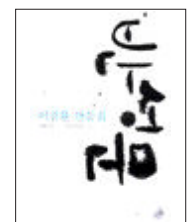
▲아동수집가(전 2권)=2006년 독일에서 첫 출간된 이래 전 세계에서 30만부 이상 팔린 지베네 티슬러의 스릴러 소설. 소설은 살인범의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만들었는지를 파고든다. 〈창해·각 권 1만원〉



▲물소리, 새소리=재목 간호사를 지낸 '그림의 시인' 노은남씨의 새 시화집. 지난 12일부터 서울 시간당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고 있는 작품전에 맞춰 출간됐다.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담긴 그림 76점과 시 71편이 실려 있다. 〈나무와숲·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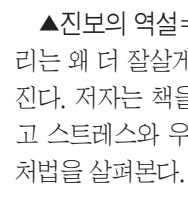
▲미아=오는 8월 개봉 예정인 공포영화 '미아'와 같은 모티브를 가진 소설. 이종호씨가 쓰고 '위대한 거짓말'의 만화가 강도하씨가 그림을 그렸다. 베트남의 '초상화의 진실'을 주제로 영화에서 표현하지 못한 새로운 공포와 재미를 소설에서 맛볼 수 있다. 〈예담·8천원〉



▲반성문='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의 새 산문집이다. 따뜻한 이야기를 써 독자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선사했던 저자의 잔잔한 문체와 오랜 여운이 계속된다. 저자는 나무와 꽃, 가족, 이웃 등 모든 것이 반성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9천500원〉



▲네거티브. 그 치명적 유혹=대선을 앞두고 미국 선거 역사 최악의 네거티브전을 기록했던 사례들을 모은 책이 출간됐다. 저자 커린 스윈트는 2004년 조지 부시와 존 케리의 대통령 선거 등 25개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소개한다. 〈플래닛미디어·1만6천500원〉



▲진보의 역설=저자인 미국 언론인 그레그 이스터브룩은 "우리는 왜 더 잘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책을 통해 현대인이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처법을 살펴본다. 〈에코리브러·1만8천원〉



▲우연한 여행자='종이시계'(1987)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앤 테일러의 1985년 소설.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행 작가 메이컨은 예언권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갔다. 용감하고 엉뚱한 애견 트레이너 여성 류리엘을 만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의 관계가 시작된다. 〈예담·1만2천원〉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12개월~5월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12개월~5월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택관리(토) 시험일: 10월21일
- 모집대상
 - ▶졸업후 2년 이내 취업 희망자
 - ▶성시 근무자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 이신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신 분
 -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신학수 정원제 모집
 - ▶수료후 100~80% 환급
- 접수
 - ▶수강절차: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1-컴퓨터과정-

- 모집과정
 - ▶정보화기초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투브/인터넷
 - ▶정보화기초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모집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 ▶수료후 100% 환급
- 접수
 - ▶수강절차: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일수금 19:00~21:00(기초) ▶화목 19:00~21:00(기초1)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면 ☎224-4560, 232-1088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7.9 급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공채 1차 1300명 (사상초우)
2차 내년 초 1400명 (대모집)

全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일
南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해반기 시험 주야반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급 공무원

거점직용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원직, 농업직, 관공직, 보건직, 출판관리직, 기술직

79급 공무원 필수만 첫진도 7월 1일 전일합격·교정문제풀이 10월 1일

입부금액 3,000여명명 전일합격·교정문제풀이 10월 1일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전직종 첫진도=사전에약점수 중)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한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환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환정) 3,250,000 → 1,600,000원
왕복 4인 대리석식탁 (5조환정) 1,300,000 → 690,000원
인덕전환기 (신학수 20%) → 39,000원

오픈기념 황토침대, 정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환정판매)
USD-비트Q 1,470,000원 (5조환정판매)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0621252-3001~2 / 금호빌딩 7층 ☎0621350-8764